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의 세계경영사적 의의

Global Management by the Achaemenia Dynasty of Persian Empire

저자 (Authors)	심종석 Shim Chong Seok
출처 (Source)	로고스경영연구 7(2) , 2009.10, 21-55 (35 pages) Logos Management Review 7(2) , 2009.10, 21-55 (3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로고스경영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277831
APA Style	심종석 (2009).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의 세계경영사적 의의. 로고스경영연구, 7(2), 21-55.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의 세계경영사적 의의

심 종 석*

<요 약>

본고는 논제에 기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대한 성취가 이 시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신앙적 시사점을 함의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마땅히 되새겨 두어야 할 성서사관의 정체성을 바로 분별하여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인류사랑에 대한 실재를 재삼 부각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고대 오리엔트사에 성서의 횡적 기록을 연계하여 키루스대제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의 유업을 되짚어 보는 중에 그 역사적 실체를 성서적 사관으로 치환하여 재조명하는 것에 두었다. 이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성서의 기록을 이해함에 있어 간과될 수 있는 횡적 사실(史實)을 명료히 정립하고, 나아가 아직까지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페르시아 인류공영을 위한 세계경영사적 사실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성체계는 페르시아 왕조의 유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취지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페르시아 왕조와 극명히 대립되는 앗시리아의 정립(鼎立)과정과 정복역사에 대한 성서기록을 개관하고, 이후 관용과 포용으로 일관된 페르시아의 주요 역사적 사실들을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 묶어 마찬가지로 이에 성서기록을 결부하여 조명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본고의 결과로서 도출하고자 하는 함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또한 변함없이 그 당시와 다르지 않다는 성서사관적 사실이다. 더불어 경영사학적 시각에서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랑에 기한 리더쉽의 역할이 현 시대의 무한경쟁체제 하에서나 그 무엇보다도 긴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성공의 핵심키워드라는 사실의 부각에 있다.

한글색인어 :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대제, 관용, 포용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경영학박사·법학박사), cyrus@daegu.ac.kr

논문접수: 2009. 7.19 1차 심사: 2009. 8.19 2차 심사: 2009. 10.16. 게재확정: 2009.10.27

I. 서론

1.1 문제의 제기

페르시아(Persia)는 1935년 ‘아리안(Aryan)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현재의 이란(Iran)으로 국명이 개칭되기 전까지 ‘고대 오리엔트’(ancient orient)¹⁾사에 있어 최초의 통일제국으로서 역사적 지위를 점한다.

성서에서 본래 바사(波斯)라 칭해지고 있는 페르시아는 주지하듯 바벨론 유수 이후, 이스라엘 포로귀환의 역사와 본토 귀환 후 성전건축의 역사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대하 36:22, 스 01:01, 느 12:22, 단 05:28), 모름지기 성서적 시각에서 페르시아 건국의 당위는 이미 이사를 포함하여 여러 소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던바 그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계획을 배경에 두고 있다.

페르시아가 고대 오리엔트에 등장하기 전까지 이 지역을 지배하였던 제국명멸의 역사는 한마디로 압제와 항거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으로 점철되었는데, 그 주체는 앗시리아(Assyria), 바벨론(Babylonia), 이집트(Egypt) 등이었다.

이에 반하여 후대의 제국으로서 페르시아는 이들 주체와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제반 열국들을 관용과 포용으로 지배하여, 그동안 고대 오리엔트사에 있어 주변 열국들이 익히 경험하지 못했던 이른바 인류공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성서사관적 시각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 곧 해방의 역사로 고스란히 결정화(結晶化)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영욕의 군사대국 앗시리아의 제국주의적 정복의지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B.C.724년), 분단된 혈육으로서 남겨진 남유다 또한 한동안 앗시리아 봉신국가로 근근이 그 명맥만을 유지하다 끝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B.C.587년), 이로부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민족적 기원과 정체성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페르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본토귀환과 예루살렘 성전건축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를테면 여호와의 구원[解放]계획은 그 본연의 함의가 무엇이었고, 또한 이로부터 이 시대를 향한 성서사관적 의의는 어떻게 바로 새겨야 할 것인가 하는 논제가 남겨지는데,

1) 오리엔트(orient)는 일반적으로 아시아 동쪽 끝, 곧 극동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에 고대(ancient)라고 하는 한정사를 붙여 고대 오리엔트(ancient orient, ancient near east)라고 지칭하는 경우 지리학적 용어가 아닌 역사학상의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대 오리엔트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역사상 최초의 문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분별하여야 하고, 또한 이 같은 최초 문명이 시작된 사회의 넓이를 고대 오리엔트라는 지역적 범위와 동일시하여야 한다(심종석, 2004).

본고는 이를 연구동기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고는 여호와의 구원계획에 대한 성취가 이 시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신앙적 시사점을 함의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마땅히 되새겨 두어야 할 성서사관의 정체성을 바로 분별하여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인류사랑에 대한 실체를 본 논제에 결부하여 재삼 부각해 보고자 한다.

주요 골자는 고대 오리엔트사에 성서의 횡적 기록을 연계하여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가의 유업을 되짚어 보는 중에 그 역사적 실체를 성서적 사관으로 치환하여 재조명하는 것에 두었다. 이를 통해 페르시아에 대한 성서의 기록을 이해함에 있어 간과될 수 있는 횡적 사실(史實)을 명료히 확립하고, 나아가 아직까지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페르시아의 인류공영을 위한 세계경영사적 사실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성체계는 페르시아 왕조의 유업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계획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취지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페르시아 왕조가와 극명히 대립되는 앗시리아의 정립(鼎立)과 정과 정복역사를 성서기록을 통해 개관하고, 이후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의 주요 사실들을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 묶어 마찬가지로 이에 성서기록을 결부하여 조명하는 수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재삼 거론하기에 본고의 결과로서 도출하고자 하는 시사점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또한 변함없이 그 당시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신앙적 사실이다. 더불어 경영사학적 시각에서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랑에 기한 리더십(leadership)의 역할이 현 시대의 무한경쟁체제 하에서나마 그 무엇보다도 긴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성공의 핵심 키워드라는 사실의 부각에 있다.

II.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앗시리아의 정립(鼎立)

2.1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개념과 범위

고대 오리엔트의 문명사적 중심은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 성서에서 아람(Aram)]이다. 메소포타미아는 서아시아 티그리스강[Tigris R. : 성서에서 히데켈(Hiddekel)]과 유프라테스강[Euphrates R. : 성서에서 유브라데] 사이의 지역일대를 가리키는 명칭이다(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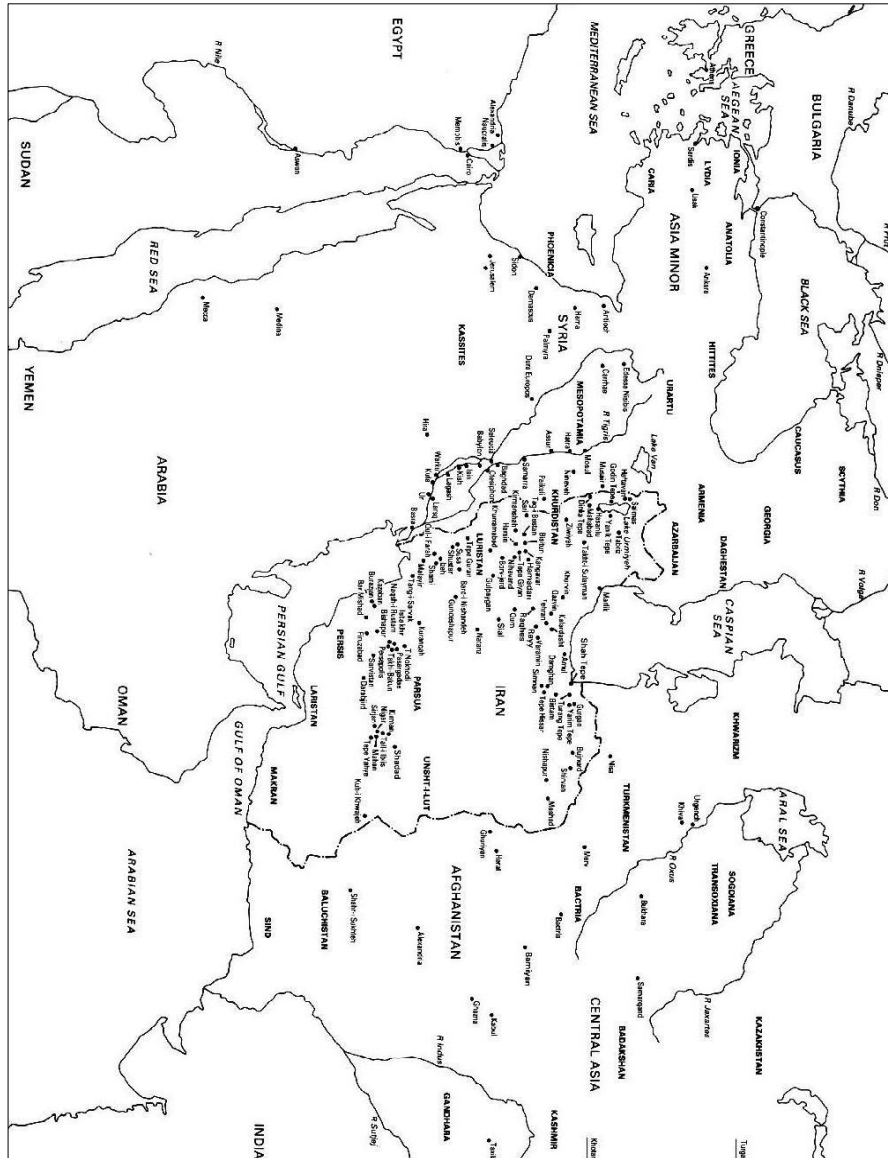
02:14, 5:18, 36:37, 민 23:07, 수 01:04, 대하 09:26, 스 05:03, 렘 46:02, 단 10:04, 호 12:12 등).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사이[間]의 의미인 메소(*meso*)와, 강(江)의 의미인 포타모스(*potamos*)라는 단어의 조합에서 비롯되는데, 때로는 ‘두 강 사이의 들녘’(the plains between the two rivers)이라는 미화된 의미로 지칭된다. 두 강의 수원지는 현재 터키 아르메니아의 산들이며, 하류부근에서 하나로 합쳐져 페르시아만(the Gulf²⁾)으로 유입된다. 현재 이 지역은 이라크·시리아·터키 3개국에 걸쳐 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리 ‘비옥한 초승달 지대’(fertile crescent)로도 불리운다.³⁾

지정학적으로 고대 북부 메소포타미아는 대체로 앗시리아에 해당하고, 남부는 바벨론이며, 이는 다시 북부를 아카드[Akkad : 성서에서 악갓(Accad). 창 10:10], 남부를 수메르[Sumer : 성서에는 시날(Shinar)로 총칭한다. 창 11:02, 14:01, 14:09, 수 07:21, 사 11:11 등]로 구분한다. 다만 메소포타미아를 넓게 지칭하는 경우 북쪽은 터키 산악지대, 남동쪽은 페르시아만, 동쪽은 티그리스강을 건너 현재 이란과 경계인 자그로스(Zagros)산맥, 서쪽은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시리아 사막까지를 포함하고, 좁게는 단지 두 강 사이의 지역을 뜻한다(Mcintosh, 2005, Ch. I).

이 같은 지리적 위치에서 메소포타미아는 이후 많은 민족이 흥망성쇠를 되풀이 하는 역사의 무대가 된다. 곧 인류 최고(最古)문명 주체였던 수메르를 위시하여, 잘 알려진 민족으로 아카드·후르리(Hurrian)·앗시리아·바벨론·ฮิต타이트[Hittite : 성서에서 헷족속. 창 15:20, 출 03:08, 신 07:01, 수 03:10 등]·히브리(Hebrew)·페니키아[Phoenicia : 성서에서 베니게. 사 23:03, 왕상 05:09-18, 16:29, 왕하 6:31 등]·페르시아 등이 이 지역 역사의 주체로써 등장하게 된다. 기간은 대략 3,000년에 이르고, 범위는 반경 약 1,600km에 달한다. 고대오리엔트 및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적 범위는 이하 <그림 1>의 지도에서와 같다.⁴⁾⁵⁾

- 2) 전통적 명칭은 페르시아만(Persian Gulf)이다. 현재 공식지명으로 걸프만[the Gulf]으로 지칭된다. 이 경우 걸프만은 지명분쟁, 예컨대 페르시아만·호메이니만·아랍만 등의 주장에 따라 Gulf의 어의가 변용되어 고유명사화된 의미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 3) 이는 미국 고고학자 브레이드 우드(Braidwood R.)가 처음으로 사용한 바에 기인한다.
- 4) 이하 본 고상 인명과 지명은 성서상의 명칭과 역사상의 명칭을 일부 혼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성서상의 횡적 역사에 주안점을 두기 위한 취지에서임을 참고로 한다.
- 5) [논자는 2009년 01월 중 이란관광청 및 테헤란 국립대학교의 협조·지원 하에 이란의 성서유적지에 대한 답사(주요 도시로 테헤란, 쉬라즈, 하마단, 야즈드, 케르만샤, 아와즈, 이스파한 등)를 수행하였다. 성서와 관련한 전체 유적지를 대상으로 미디어를 포함한 약 50여 종의 희귀서적과 2,800여 장의 최신 유적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눔이라고 하는 협력의 취지에서 이를 필요에 따라 제한 없이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본 고에 삽입된 사진은 그 일부임을 참고한다.]



<그림 1> 고대오리엔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적 범위

2.2 앗시리아의 기원, 제국정립(鼎立)의 서막

앗시리아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곧 티그리스강 상류를 중심으로 발현하였다. 그 명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神)들 중 이슈르(Ashur)에 기원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 앗시리아는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하여, 니네베(Ninevah : 성서에서 니느웨)에서 이슈르에

이르기까지 농경하기에 적합한 비옥한 충적토가 펼쳐져 있었으나, 남쪽은 강수량이 적어 농경은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유익한 땅을 찾아 유랑하며 생활해야 했던 까닭에, 초기 앗시리아 왕들은 대개 천막을 근거지로 생활하였다(Smith, 2006, pp.7-16, Smith, 2005, pp. 202-204).

앗시리아는 도시국가(city-state)⁶⁾로 B.C.2300년 경 티그리스강 상류, 현재 이라크 시날(Shinar)에서 발원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때는 B.C.2100년 경 이 지역을 지배하던 우르(Ur) 제3왕조가 망한 뒤부터이다. 이후 앗시리아는 바벨론 함무라비(Hammurabi)와 동시대인 삼시-아닷 1세(Shamshi-Adad I) 때에 급신장하여 인근 주변 민족을 대부분 점령하기도 했지만, 이내 후르리인(Hurrian)⁷⁾이 세운 미탄니 및 바벨론 속국으로 전락하게 된다(Schomp, 2004, pp.10-15).

B.C.1400년 경 재차 부흥한 앗시리아는 바벨론과 일대 격전에서 승리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신흥세력으로 급부상하는데, 이로부터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실질주체로서 바벨론의 문화적·종교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게 된다.

이후 본격적 정복사업을 펼쳐 B.C.800년 중반 최대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당시 보유한 인간병기로서 보병 170만, 돌풍과도 같았던 기병 20만, 또한 지나는 곳마다 슬픔과 어둠만을 남겼던 무자비한 전차 16,000대는 당대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으로서 위상을 돋보일 수 있는 예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열국 신들 중 그 땅을 앗수르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왕하 18:33)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사 10:6)

“성문이며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며 부르짖을 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향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사 14:31)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사 37:18)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수리를 날려 네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네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렘 02:15)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겔 23:10)

6) 고대 도시국가(city-state)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치된 설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심신전, 시가 시설 등의 존재와 특정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큰 취락의 병존 등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通說).

7) 후르리인(Hurrian)은 아르메니아에서 발원, B.C.3000년경 북메소포타미아에 진출한 민족이다. B.C.1500년 경 미탄니(Mitanni)를 세워 동쪽 자그로스산맥에서 서쪽 시리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였다. 히타이트(Hittite) 왕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 신흥세력으로 등장한 앗시리아에 의해 B.C.1300년 경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인류최초로 동과 철을 채광·제련하는 기술을 터득하였다.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 되리로다.”(호 13:15)

앗시리아는 피지배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근절시키고자 강제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같은 이주정책은 이스라엘에 있어 후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반목·질시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이주정책은 민족의 정체성을 분리시켜 영원히 예측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최대의 군사대국으로서 위용을 자랑하던 앗시리아도 아슈르바니팔(Assurbanipal : B.C.668-633)이 재위하였을 당시 바벨론 처처에서 폭정에 대항하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차츰 군사력을 소모하며 쇠퇴하게 된다.

이후 B.C.612년 바벨론과 메데(Media)의 연합군에게 수도 니네베가 점령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B.C.605년 카르케미시(Carchemish) 전쟁에서 바벨론의 네부갓네자르 II 세(Nebuchadnezzar II : B.C.605-562, 성서에서 느부갓네살)에게 패함으로써 희대의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Roaf, 2008, pp.198-199).

2.3 앗시리아에 대한 성서기록의 조명

2.3.1 티글랏 빌레셀 III세의 침공

“앗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오십 세겔씩 내게 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앗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왕하 15:19-20)

본문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말기의 침통한 양상을 묘사하고 있다. 당시 국왕은 연이어 죽임을 당하고 잔혹하기 그지없는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전국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강국 앗시리아의 침공이 있었다.

첫 번째 침공 시에는 거액의 배상금을 바치는 것으로 무마하였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엄청난 타격이 가해졌고, 또 다시 10여년 뒤에 두 번째 맹렬한 침공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다. 이 기록은 그 전반부를 묘사하고 있다.

2.3.2 티글랏 빌레셀 Ⅲ세 강제이주정책과 아람정벌

“앗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왕하 15:29)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왕하 16:07)

앗시리아가 그들이 점령한 영토의 백성들을 이주시킨 목적은 민족성을 말살하여 반역 기회를 없애고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노역에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이스라엘은 미디어(Media) 땅으로 옮겨져 노예생활을 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취하게 하였다. 이는 후일 양 민족으로 하여금 완전히 갈라져 반목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앗시리아와 이집트 틈바구니에 낀 아람·팔레스타인은 이유 없이 앗시리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이에 당시 수리아 및 이스라엘은 이집트 후원을 기대하면서 반앗시리아 동맹을 맺고 있었다. 이스라엘 왕위쟁탈의 이면에는 외교정책으로써 친앗시리아파와 친이집트파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예컨대 므나헴(Menahem)·브가히야(Pekahiah)는 친앗시리아, 달리 베가(Pekah)는 반앗시리아 입장에 있었으나, 곧 친앗시리아 호세아(Hosea)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된다.

결국 수리아와의 에브라임 동맹은 베가가 즉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된 것으로 양국이 협력하여 유다의 아하스(Ahaz)를 징벌하고 유다를 제 편으로 끌어드리려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었다. 유다의 시각에서 보면 요담(Jotham)왕조로부터 비롯된 북방으로부터 압박은 이때에 이르러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2.3.3 앗시리아에 망하게 된 이스라엘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앗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앗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 곳을 삼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 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왕하 17:03-06)

이스라엘의 강제이주 목적지는 유프라테스강 상류 및 티그리스강 하류지역이었다. 이스

라엘의 운명은 여기에서 종말을 고한다. 이후 그들은 상실민족(lost tribes)으로 치부된다.⁸⁾ 이 기록에서 주목할 사실은 사마리아를 점령한 앗시리아 왕은 살만에셀 III세가 아니라 사르곤 II세라고 하는 점이다. 곧 살만에셀은 사마리아 공략 중에 병사하게 되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르곤이 즉위하여 사마리아를 점령한 것이다. 이는 사르곤의 궁전벽화에 부조로 각인되어 있는 사실이다.

당해 부조에는 포로로 끌고 간 이스라엘인이 약 30,000여 명, 전차 수는 약 50여 대라고 기록되어 있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총독을 두어 다스리게 하고 이후 조공과 조세를 징수하였다고 전한다. 잔류백성들과 바벨론인 기타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잡혼으로 후일 사마리아인이 되게 된다. 특기할 사실은 그때까지 독립을 지키고 있었던 민족은 보잘 것 없는 유다이였는데, 먼저 무너진 민족은 유다가 아닌 앗시리아였다는 것이다.

2.3.4 앗시리아의 강제이주정책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왕하 17:24-26)

본문에서 앗시리아왕은 정확하지 않다. 해당될 수 있는 왕은 사르곤 II세, 에살하돈, 아슈르바니팔 등이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강제이주정책을 통하여 민족혼을 말살하고 그들의 필요에 의한 노역을 충당한 공통점이 있다. 기록상 사마리아(Samaria)는 땅주인 세멜(Shemer)에서 유래되었다(왕하 16:24). 후에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지역 전역을 일컫던 북이스라엘 왕국과 동일시 된 이름이다. 북이스라엘의 오프리왕은 이 땅을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사서 도시 전체를 요새화하고, 수도를 디르사에서 이곳 사마리아로 옮겼다. 사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고, 주변의 평지보다 약100m 정도 솟아오른 천연의 요새였던 까닭에, 앗시리아 군대의 포위에도 불구하고 3년간이나 버틸 수 있었다.

8) 이 경우 상실민족(lost tribes)이라고 함은 타지방 민족과 접촉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곧 거레로서 그리고 단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2.3.5 센나크헤립의 침공

“히스기야 왕 제십사년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앗수르 왕이 곧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왕하 18:13-16)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왕하 19:35-37)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쇄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대하 33:10-13)

18만 5천에 이르는 앗시리아 군사가 전멸한 이유에 관해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os : B.C.484-425)는 들쥐가 활시위를 끊고 무기 등을 갇아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설은 당시 지중해 지역이나 평원에 통상 발생하였던 열병(熱病)이 유행하여 패퇴하였다고도 한다. 다만 사무엘하 24장을 참조하여 역병(疫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⁹⁾

한편 유다 아하스 치세 시 앗시리아에 대하여 군신관계를 맺었으나 히스기야는 이를 파기하였다. 그 결과 센나크헤립은 히스기야 즉위 14년에 유다에 침입하여 46개의 성을 취하였다. 히스기야는 결국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시적으로 화친을 맺게 되나 이후 센나크헤립은 재차 침공하게 된다.

9) 동 기록은 열왕기하 18:09의 연대와 서로 불일치하는데, 곧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당해 기록은 “히스기야왕 4년 곧 이스라엘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앗수르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와 같다.

2.3.6 므낫세의 말로와 이사야의 예언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퍼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사 08:05-08)

므낫세는 앗시리아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운명을 접한다. 이 기록에서 쇠사슬로 결박당 하였다고 함은 코에 쇠사슬이 꿰어 끌려갔음을 말한다. 최대의 악한 왕 므낫세는 선지자 이사야의 허리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도 하는데, 이는 마땅한 결과였다. 후반기록에서 므낫세가 회개하였다는 기사는 그간 므낫세의 행실과 예레미야 15:04절을 참고할 경우 시사적 기사로 보인다.

2.3.7 여호와께 맞서는 앗시리아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사 10:10-12)

“앗수르는 칼에 옳되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사 31:08)

여호와와 앗시리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및 유다의 죄를 벌하시려고 다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앗시리아는 교만하여 자신의 능력으로써 정복자가 된 것처럼 자만하였다. 그들은 또한 여호와를 우상이라고 부름으로써, 여호와께 대한 이중의 모욕을 행하였다. 결국 그들은 예언되었던 바 그대로,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운명을 접한다.¹⁰⁾

10) 이 외에 참조할 수 있는 기록은 왕상 12:16, 왕하 15:19, 17:03, 18:21, 대상 05:25-26, 대하 28:18-23, 사 07:17-20, 10:03, 11:11-16, 13:05, 20:01-06, 19:04, 30:07, 47:02, 느 03:15, 09:32, 암 08:08, 렬 16:16, 겔 29:06 등이다.

2.4 앗시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상과 같이 성서기록을 통해 조명해 본 앗시리아는 고대 오리엔트에 속한 제반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무자비한 유혈정책과 강제이주정책을 통해 말살하고자 했던 최대의 군사대국이었다.

앗시리아의 이 같은 유혈정복정책은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던 단초를 제공하였던 바, 이는 당시 고대 오리엔트 전 지역이 앗시리아에 의한 공포와 압제의 예속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성서적 시각에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칭호로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 말씀의 범위에 견고히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역사적 실재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을 향한 앗시리아의 무자비한 압제와 폭정의 역사적 고난은 달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 그대로의 위장(偽裝)된 축복이었음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였음을 함의한다.

결국 이스라엘은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한 멸망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이 같은 위장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게 되는데, 그 도구로써 사용된 민족이 다름 아닌 페르시아, 곧 성서에서의 바사(波斯)이다.

이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페르시아는 앗시리아와는 판이하게 다른 고대 오리엔트 세계 경영의 큰 틀을 제시하며 등장하게 되는데, 그 기반이 포용과 관용 그리고 화해에 기한 인류공영의 이념이었다.

세계경영의 주체로서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의 유업을 성서기록을 연계하여 그 핵심을 되짚어 보면 이하 다음과 같다.

Ⅲ. 페르시아의 발현과 아케메니아 왕조의 유업

3.1 페르시아의 기원

메디아(Media)왕국을 건설한 메디아인은 고대 오리엔트 최후의 주역으로서 페르시아인과 함께 현재 이란민족의 기원을 이룬다. 이들 민족은 다시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티그리스강 동부지역에 거주하였던 민족들을 메디아인(median)이라 부르고, 파르스(Fars)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들을 페르시아인(persian)이라 칭한다. 이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거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티그리스 동남방에 거주하였던 엘람·바벨론·앗시리아 등과 숙명적 대립관계에 놓인다.

한편 이 지역에 거주하였던 민족으로서, 예컨대 메디아인·페르시아인·스키타이인 등의 공통된 풍습 중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어느 민족이나 기마술에 매우 능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메디아인은 고대 오리엔트에 기병전술을 도입한 최초의 민족으로 칭해진다. 이를테면 그들의 기마전술은 단지 히타이트처럼 전쟁수행 시 단순히 말과 전차를 동원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쟁의 과정에서 탁월한 기마술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과 체계적 전술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였다.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 북서부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지방에 있는 우르미아(Urmia) 호수 남서쪽에 위치하였던 파르스에서 발현하여 B.C.7세기경 남동쪽 파르스마시(Parsmah)로 이동하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페르시아라는 명칭은 파르스(Pars)로부터 유래한다.

메디아인과 같은 시기에 이란고원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페르시아인은 그들 부족 중 아케메네스(Achaemenes) 가문출신의 왕을 추대하여 제국으로서 면모를 일신하는데, 이 왕조는 시조 아케메네스에서 시작되어 두 계통으로 나뉘게 된다.¹¹⁾

그 하나는 아케메네스 장남 아리아람네스(Ariaramnes)가 파르사를 중심으로 세운 국가와, 다른 하나는 차남인 키루스 I세(Cyrus I)가 파르스마시와 안잔(Anzan, Anshan)을 거점으로 세운 국가로 각각 독립된 왕조를 잇게 된다.

안잔은 당시 점차 국력이 쇠약해진 엘람(Elam)왕국으로부터 페르시아인이 빼앗은 지방인데, 당시 페르시아 영토는 파르사·파르스마시·안잔의 세 주(州)에 국한되었다. 이후 키루스 I세가 죽은 뒤 왕위에 오른 캄비세스 I세(Cambyses I)는 세 주를 통합하고 왕으로 등극하여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된다.

캄비세스 I세는 아리아람네스의 아들이었던 그의 이종형 아르사메스(Arsames)를 추방하고 왕위에 등극한 인물로서, 북방 메디아의 왕녀였던 만다네(Mandane)를 왕비로 맞게 된다. 따라서 캄비세스 I세는 혈통상 메디아 최후의 왕 아스티아게스(Astyages : B.C. 585-550)의 사위가 된다.

이후 캄비세스 I세와 만다네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그 유명한 키루스대제(Cyrus II, Cyrus the Great : B.C.599-531)¹²⁾인데, 그는 후일 외조부의 나라 아스티아게스의 메디아를 전복하고, 페르시아인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제외한 고대 오리엔트 전 지역을 정복·통일함으로써 고대 오리엔트사에 있어 최후·최대제국의 기틀

11) 사실상 아케메니아 왕조를 창시한 인물은 아케메네스인데, 그는 B.C.7세기 경 살았던 인물로 추정될 뿐 그의 생애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아케메니아 왕조의 역대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자, 성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인물은 당연히 키루스 II세(Cyrus II : 성서에서는 고레스)를 꼽는다. 그는 아케메니아 제국(곧,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주인공으로서 일반적으로 그가 왕위에 오른 B.C.559년을 페르시아 제국의 기원[元年]으로 삼는다.

12) 성서에서는 고레스로 칭한다(대하 36:22-23, 스 01:01, 사 44:28, 45:01, 단 10:01 등).

을 마련하게 된다(Vaux, 2005, pp.16-45).

3.2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유업

3.2.1 희대의 성군 고레스 대제

[메디아의 정복]

고레스대제는 고대 오리엔트 전역을 정복하고 통일하여 명실공히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고레스의 이름이 개인 이름인지 왕호인지는 불분명하다(Frye, 1993). 다만 그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자료는 크세노폰(Xenophon : B.C.430-355)이 쓴 전기(傳記) 키로파이디아(Cyropaedia)이다. 이 전기에 의하면 당시 메디아 왕이자 페르시아 군주였던 아스티아게스(Astyages)는 그의 딸을 페르시스(Persis)에 있는 신하 캄비세스와 혼인케 하는데, 고레스대제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결국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대제의 외조부가 된다.

그러나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가 장성하여 그를 멸망시키는 꿈을 꾸게 되고, 이 때문에 왕은 급기야 고레스를 죽이라는 명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외조부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고레스는 우여곡절 끝에 죽었던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외조부에 대한 원망과 반감을 보다 분명히 새기게 된다. 장성한 고레스는 페르시아에서 세력을 키우게 되고, 또한 메디아 멸망 이후 고대 오리엔트 통일에 대한 웅비의 꿈을 키우게 된다.

때가 이르러 당시 정세는 그가 아스티아게스에 도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곧 메디아는 북시리아에 위치한 하란을 점령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바벨론 나보니두스(Nabonidus)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고레스대제와 동맹을 맺게 된다. 나보니두스는 이 동맹으로부터 북시리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메디아 후방을 압박하기에 이른다.

동맹사실을 접한 아스티아게스는 격분하여, 급기야 외손자인 고레스를 수도 엑바타나[Ecbatana, 현재 이란 하마단(Hamadan)]로 소환하기에 이른다. 이 소환은 당시까지 페르시아가 메디아 속국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고레스대제는 소환에 불복하고 나보니두스와의 동맹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게 되는데, 이는 달리 메디아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다름이 없었다.

결국 아스티아게스는 페르시아를 친정(親征)하게 되지만, 전쟁은 고레스대제의 압승으로 끝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대제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대제는 그 옛날 외조부로부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성장한 한 맺힌 기억을 뒤로 하고 아스티아게스를 외조부로서 또한 왕자(王

者)로서 후히 대우하고 위로하였다.

이후 고레스대제는 미디어 백성들을 포용하기 위해, 즉시 도움을 외조부 왕국이었던 미디어 수도 엑바타나로 옮겨, 본래 혈통이 같았던 미디어와 국가적 통일을 도모한다. 그 결과 고레스대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미디어의 우수한 군사력을 고스란히 수용한다. 이는 고레스대제가 본격적으로 고대 오리엔트 통일에 나서게 되는 결정적 기반이 된다(Vaux, 2005, ibid).

고레스대제는 원정에 앞서 우선 내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곧 이란 고원 인근 부족에 대한 지배력을 보다 견고히 하였는데, 이는 원정도중 내부혼란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국력의 분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이전 제반 열국의 멸망을 목도하고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된 통찰력 있는 혜안이었다.

[리디아와 그리스 식민도시의 정복]

고레스대제가 본격적으로 정복에 임한 것은 소아시아 지역이었다. 당시 리디아(Lydia) 크로에서스(Kroisos, Croesus)는 미디어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대제에 멸망했다는 소식에 인근 미디어인들을 회생시켜 영토확장에 임하고 있었다.

고레스대제는 이 같은 리디아 영토확장에 제동을 걸고자 자칭 미디어 후계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리디아를 공격하였다. 결국 고레스대제는 B.C.547년 수도 사르디스(Sardis)를 함락하기에 이른다. 사르디스 결전에서는 고레스대제의 전술적 지략이 십분 발휘되었다. 즉 고레스대제는 리디아 기병대에 맞서 낙타부대로 맞섰는데, 이를 접한 리디아 기병과 전차대의 말들은 처음 대하는 낙타의 체취에 진열이 무너지게 되고, 급기야 리디아의 전열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소아시아에 있어 그렇게도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였던 리디아는 겨우 1년을 버티지도 못하고 패망하고야 만다. 때는 B.C.546년의 일이었다.¹³⁾

고레스대제는 리디아를 정복하고, 당시 리디아 속국이었던 에게해 연안도시들을 평화적으로 정복한다. 그리스 도시 일부를 점령한 페르시아는 이 정복으로부터 단순한 영토확장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곧 페르시아가 정복한 리디아 내에는 그리스 식민도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서방의 그리스 문화를 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었다. 결국 페르시아인은 고레스대제의 포용정책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그리스인과 동거하게 되고, 또한 이후 페르시아왕들은 그리스인들을 자국 국민

13) 고레스대제에게 대항했던 크로에서스는 결국 사로잡고야 만다. 일설에는 고레스대제가 왕으로서 그를 후대하였다고 하나,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레스대제가 금을 녹인 용해물을 크로에서스 목에 부어 죽였다고도 하고, 달리 그를 화형시켰다고도 한다. 그 이유는 크로에서스가 재워 당시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혈세를 징수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 영토확장을 위해 동족 미디어인의 희생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으로서 지배하게 되었다.

고레스대제에 의한 리디아 정복은 페르시아로 하여금 고대 오리엔트에서 경제적 실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신바벨론 제국을 북으로부터 압박하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구할 수 있다(Loveday, 2005, pp.26-28).

[바벨론의 정복과 유다인의 해방]

리디아를 정복한 고레스대제는 에게해(Aegean Sea) 인근과 흑해(Black Sea)연안 그리스 식민지를 정복하여, 이곳에 2개 속주를 설치한 뒤, 정복로를 동쪽 이란고원으로 돌리게 된다. 그 배경에는 동·서 무역로를 완전히 장악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또한 불안하였던 이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리하여 B.C.545-539년에 이르는 7년 동안 현재 이란 전 지역에 걸쳐 대정복을 감행하고, 결국 주변 모든 지역을 페르시아 영토에 편입하게 된다.

이후 고레스대제의 최후과업은 메소포타미아 심장부를 점거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정복이었다. 당시 바벨론의 나보니두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메디아 멸망을 전후하여 고레스대제와 동맹을 맺고 있는 있었으나, 바벨론 백성들은 나보니두스의 치세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국가의 최고신이었던 마르둑의 신관들까지 나보니두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결국 안팎으로 적들에게 휩싸이게 된 나보니두스와 바벨론은 별다른 대응 없이 고레스대제에 굴복하고야 만다. B.C.539년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였던 고도 바벨론은 이렇게 페르시아에 예속된다.

한편 나보니두스왕은 사로잡혀 고레스대제를 대하게 되나, 성군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와 마찬가지로 나보니두스를 왕자의 예로 후대하고, 그가 죽었을 때도 성대한 국장으로 장사지내 주기도 하였다. 고레스대제는 바벨론에 입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심종석, 2004, 481-482면).

“내가 호의를 갖고 바벨론에 입성했을 때, 나는 환호와 축복 속에서 그 궁전에 왕좌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관대한 바벨론 사람들을 내게 붙이셨다. 이에 나는 그 신을 날마다 숭배하였다. 나의 수많은 군사들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바벨론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수메르와 아카드 땅을 공포로 몰고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바벨론의 요구를 언제나 경청하여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 땅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바벨론 시민들의 온당치 못한 명을 벗겨 주었으며, 황폐화된 그들의 거처를 다시 마련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불운을 종식시켰다.”

앗시리아 왕들의 정복사에 비추어 볼 경우 가히 격이 다른 선언이었다. 이 같은 고레스 대제의 선언은 오늘날 소위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점토판에 설형문자로 새겨져 지금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전해지고 있다(Allen, 2005, pp.25-36).¹⁴⁾

[성서 기록상 최초의 메시아, 고레스대제]

당시 세계의 수도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도시에 입성한 고레스대제는 실로 전 세계의 통치자로서 당당히 군림하게 된다.¹⁵⁾ 고레스대제는 바벨론을 통치함에 있어, 당시 바벨론 국신(國神)으로 숭배되고 있었던 마르둑의 신의(神意)에 적합하여 선출된 정통의 왕위 계승자 또한 신의를 따라서 평화를 실현하는 해방자로서 그 정통성을 확보하고 군림하였다. 나아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열국의 종교·풍속·관습 등을 존중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나 보니두스가 수도에 모아놓았던 각처의 수많은 신상을 각각 그 나라의 신전으로 되돌려 주었으며, 특히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생활 중에 있었던 유다인을 해방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B.C.537년). 그 결과는 후일 예루살렘 신전의 부흥과 유대교 성립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고레스대제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된 민족들을 해방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그가 이민족의 종교에 관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이유는 당시까지 적대관계에 있었던 이집트에 대한 방위의 최일선으로서 가나안 지방에 친페르시아 거점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고레스대제는 이집트 정복을 이루지는 못하고, 이란 동부지역의 호전적 부족을 정벌하기 위하여 출정하였다가 아마다르야강(Amu Darya R.)¹⁶⁾과 시르다르야강(Syr Darya R.)¹⁷⁾ 부근에서 위대한 통치자로서 생애를 마감한다. 때는 B.C.529년이었다. 고레스대제의

14) 고레스대제 선언의 영역(英譯)은 다음과 같다. “I am Cyrus, king of the world, ... , king of Anshan, whose rule Bel (Marduk) and Nabu love, whose kingship they desire for their hearts’ pleasure. When I entered Babylon in a peaceful manner, I took up my lordly reign in the royal palace amidst rejoicing and happiness. Marduk, the great lord, caused the magnanimous people of Babylon [to] me, (and) I daily attended to his worship. My vast army moved about Babylon in peace; I did not permit anyone to frighten (the people of) [Sumer] and Akkad. I sought the welfare of the city of Babylon and all its sacred centers. As for the citizens of Babylon, upon whom he imposed corvee which was not the god’s will and not befitting them, I relieved their weariness and freed them from their service. Marduk, the great lord, rejoiced over my [good] deeds. He sent gracious blessings upon me, Cyrus, the king who worships him, and upon Cambyses, the son who is [my] offspring, [and upon] all my army, and in peace, before him, we move...”

15) 현재 이란 왕은 ‘샤안샤아’(Shahanshah), 즉 ‘모든 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칭호는 고레스대제로부터 기원하고 있다.

16)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큰 강으로 옥소스(Oxus)강이라고도 한다.

유해는 파르사 왕으로 재위하였을 당시 왕궁이 있었던, 곧 파사르가다에(Pasargadae : پاسارگاد)로 옮겨져 매장되었다.



<사진 1> 파사르가다에(Pasargadae : پاسارگاد) 고레스대제 무덤(좌)과 왕궁터(우)

고레스대제는 최후까지 제국의 기원이 되었던 파사르가다에 왕궁을 지켰으나, 이곳은 동서교역 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수도로는 적당치 못하였다. 고레스대제가 대제국 통치를 위해 채택한 국도정책은 지리적으로 정삼각 구도로 위치하였던 엑바타나·바벨론·수사 3곳을 모두 수도로 정하고 계절마다 이동하는 것이었다(Allen, 2005, pp.59-86, Olmstead, 1948, pp.162-171).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도 이 위대한 왕은 광범위하였던 영토 내 각양의 민족에 대해 페르시아의 국신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 숭배를 강제하는 일은 결코 용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 민족 고유신앙과 전통을 유지할 것을 허용하였다.¹⁷⁾

이와 같이 고레스대제는 패자에 대한 관용과 각 민족의 전통을 최대한 존중하는 일에 재위 내내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였다. 이 같은 고레스대제의 포용정책은 아케메니아 왕조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때까지 후세 왕들에 의한 대제국 통치정책의 기본노선이 된다.

3.3 고대 오리엔트의 통일 캄비세스 Ⅱ세

고레스대제가 이루지 못했던 과업 중 하나는 이집트 정복이었다. 이 과업을 통해 전 세계의 통일을 이룬 장본인이 고레스대제 장자로서 왕위를 승계한 캄비세스 Ⅱ세(Cambyses

17)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카자흐스탄 남부를 관통하며, 수원(水原)은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동쪽 끝에 있는 텐산산맥(天山山脈)이다. 참고로 텐산산맥을 경계로 남·북로가 후일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였던 그 유명한 비단길(Silk Road)이다.

18) 페르시아 종교적 기원의 상세는 다음 문헌을 참조(Sam, 2006, Sec. 2).

II ; B.C.530-522)이다.

그는 부왕의 유업을 계승하여 고레스대제가 남긴 잘 훈련된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원정에 오르게 된다. 곧 캄비세스는 가나안을 종단하여, 나일강 델타(Delta)에서 당시 이집트왕 아흐메스 II 세(Ahmose II : B.C.570-526)와 그 아들 프삼메티코스 III 세(Psammetichos III : B.C.526-525)가 인솔한 이집트군과 격돌하였는데, 이 전쟁에서 캄비세스는 대승을 거둔다. 또한 캄비세스는 곧바로 델타 북쪽에 위치한 수도 멤피스를 함락하여, 이윽고 고대 오리엔트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때는 B.C.525년의 일이었다(Olmstead, 1948, pp.86-93).

캄비세스는 이에 머물지 않고 더욱 영토를 확대하고자 서쪽으로 5만 군대를 파병한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리비아 사막부근 암몬(Ammon)에 이르러 모래바람에 전멸하고야 만다. 동시에 자신이 몸소 친정한 이디오피아 원정에서도, 병참선을 지나치게 길게 두어, 여기서도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된다.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캄비세스는 본국으로부터 내란의 급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왕제 바르디아(Barbadias)가 나타나 왕위를 참칭하고, 반란의 세력을 규합하여 스스로 왕위에 등극하였다는 소식이었다. 이에 캄비세스는 이집트 수도 멤피스와 델타 인근에 최소한의 수비대만을 남겨두고 급히 본국으로 회군하였으나, 도중에 시리아 인근에서 우울과 실의에 젖어 급기야 자살하고야 만다.¹⁹⁾

사실 본국정황은 바르디아를 가장(假裝)한 당시 신관 가우마타(Gaumata)가 자신이 왕족 바르디아와 용모가 흡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바르디아를 사칭, 반란의 수괴가 되어 분열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는 후일 다리우스 I 세(Darius I : B.C.522-486)가 그 치적을 새긴 베히스툰(Behistun) 비문에서 당시 전국 모든 백성들이 가우마타에 동조하여 선왕 캄비세스에게 불만을 품고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서 알릴 수 있다. 한편 다리우스는 비문에서 가우마타가 바르디아를 사칭 왕위에 올라 내란을 주동하였던 바, 이에 그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토벌하고 반란을 평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Wiesehöfer, 2007, 29-33).

3.4 고레스대제의 유업을 계승한 다리우스 I 세

3.4.1 다리우스 I 세의 등극

다리우스 I 세는 캄비세스의 방계혈통이었음에도 캄비세스에게 후사가 없었던 이유에서 대제국 황제로 등극하는데, 당시 그의 나이 약관 28세, 때는 B.C.521년 12월이었다. 다리우스는 등극 초기 2년간은 엘람·바벨론·메디아·파르사 등 처처에서 반란이 이어져 진압에

19) 달리 급사 또는 역병에 죽었다고 하는 다양한 이설이 존재한다(Sam, 2006, Sec. 2).

온 힘을 기울여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다리우스는 별도 왕정 친위대(Immortals)²⁰⁾를 조직하였는데, 이 친위대는 왕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 충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Wiesehöfer, 2007, pp.91-92).

제국질서를 회복한 다리우스는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베히스툼(Behistun)의 암벽에 비문을 새겨두었다. 베히스툼은 자그로스(Zagros) 산맥에 위치해 있으며, 엑바타나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지나고 있다. 사진에서와 같이 노상에서 약 70m 높이의 암벽에 비문이 있으며, 부조에는 다리우스 위용과 아후라 마즈다 신상이 부조되어 있다.²¹⁾



<사진 2> 다리우스의 무덤(좌) 베히스툼의 비문(우)

3.4.2 다리우스 I 세의 대정복과 통치

다리우스는 고레스대제의 유업을 계승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왕자였다. 그의 치세 시 페르시아 제국영토는 최대에 달하였으며, 제국통치체제와 조직도 제대로 정비되었다. B.C. 514년 경 다리우스는 보스포루스(Bosporus)를 건너 트라키아(Thracia)를 우회하여 남부 러시아 초원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최초의 기마유목 스키타이를 정벌하고자 나섰는데, 이것이 그의 최초원정이었다.

그러나 이 정복과정에서 다리우스는 스키타이의 초토화전술에 말려 배후 병참대가 무

20) 왕은 이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그 막강한 지위 또한 보존해 주었다. 그들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이었는데, 친위대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정병 한 사람만을 보충하여 항상 1만이라는 수를 유지하였다. 다리우스 자신이 ‘불사의 1만 친위대’라 명명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친위대는 이후 페르시아 끝까지 존속한다.

21) 다리우스의 베히스툼 비문은 오랜 세월을, 읽는 이도 없이 방치되어 왔으나,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인 로울린슨(Rawlinson, H. Creswicke. : 1810-1895)에 의해 비문이 필사되어, 마침내 고대 페르시아 문자 해독의 기초를 확립하게 된다.

력화 되고, 이에 회군하고야 만다. 그렇지만 이 원정에서 다리우스는 유럽의 영토이었던 트라키아(Thracia)를 귀속시킨 것과, 발칸반도 중부 마케도니아(Macedonia)로 하여금 페르시아 종주권을 인정케 한 것은, 후일 그리스와 일대 전쟁을 대비함에 있어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었다.

이리하여 페르시아 영토는 북서는 발칸반도의 남동부, 남서는 이집트 남부 누비아(Nubia)까지, 남쪽은 페르시아만에서 시리아 사막 북변을 거쳐 홍해까지, 동은 인더스강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포함하였다. 실로 다리우스 시대에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대 대륙에 걸친 세계제국이 건설되었다.

한편 3대륙에 걸친 광대한 영역을 통치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써 다리우스는 우선 도로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페르시아 제국이 불과 3대 70여 년의 단기간에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의 건설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막강한 군사력 및 전략전술 외에도 아시리아 이전부터 정비되어 있었던 무역 및 군용로를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던 바에 있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는 제국의 각주를 연결하는 종횡의 도로망 건설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후세에 남긴 중요한 문화유산이 된다. 곧 소아시아 사르디스(Sardis)에서 시작하여, 타르서스(Tarsus), 하란을 거쳐, 티그리스강을 건너 페르시아의 거울 수도였던, 수사를 연결하는 소위 ‘왕의 길’(Royal Road)이 그것이다. ‘왕의 길’은 전 지역에 총 111곳의 역관이 설치되어 왕의 칙령을 전하기 위한 역마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총 길이는 2,698km에 달한다.

대상(隊商)들이 ‘왕의 길’을 지남에 있어서는 90일을 소요하였으나, 왕의 칙령은 불과 7일 만에 주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언제고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나 소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었다. 또한 다리우스는 해상교통에도 관심을 기울여 200-300ton급 대형선박도 건조하였다.

한편 다리우스는 당시까지 전례가 없었던 행정시책을 단행하였는데, 곧 제국 전 영역을 22개 주로 구분하고, 각주에는 총독을 두어 행정을 치리하게 하였다. 이 속주의 행정치리 제도는 아시리아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으나, 통치체제는 전문관료제를 채용하여 그 권한을 분산해 두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아시리아 속주의 관리는 군사와 행정의 양권을 장악한 지위였으나,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는 이와는 달리 행정권만을 일임하였다(Boardman, et al, 2008, pp.53-63).

다리우스 재위 시 조세징수 방식에 있어서도 합리적 개혁이 있었다. 고레스대제 재위 시에는, 열국으로부터 획득한 경제적 부로부터 면세의 태평을 구가하였으나, 제국안정기에 이르러서는 조세징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다리우스는 공평한 조세 부과와 제도확립을 위해 그간 왕이 임의로 속주에 대해 징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각 주를 하나의 징세영역으로 구분하고, 그것도 각 주의 부유의 정도에 따라 정액을 할당 징수하

는 합리적인 방식을 구현하였다.²²⁾

정복지의 주민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앗시리아나 바벨론의 통치정책에서 볼 수 있었던 강제이주정책은 결코 채용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피정복지의 자주적 사회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이를 활용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3.5 페르시아 제국의 쇠퇴와 몰락

3.5.1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는 B.C.5세기 말,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면서부터 쇠퇴기에 접어든다. 곧 다리우스 I세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견고히 하여 대제국의 통치기반을 견고히 하였으나, 이내 밖으로 눈을 돌려 그리스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 이로부터 대제국 페르시아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그는 이오니아 지방에서 일어난 그리스와 첫 대결에서 그들을 진압하고 무력화시켰으나, 당시 이오니아의 반란을 원조한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응징하고자 재차 원정에 나서면서부터 전세는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때는 B.C.490년 다리우스의 페르시아 군사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과 마라톤 평원에서 맞서 대혈전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다리우스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Brosius, 2006, pp.22-25).²³⁾²⁴⁾

이 파장의 여파로 다리우스는 모든 역량을 이곳에 집중하고 후일을 도모하게 되나, 결국 제2차 그리스 침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고야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페르시아의 영토는 최대의 판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22)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다리우스는 상인(商人), 캄비세스는 주인(主人), 키루스는 아버지[父]였다.” 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곧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상인처럼 처리하였고, 한 사람은 가차 없이 가혹하였으며, 또 한사람은 다정하며 따뜻하게 매사에 국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도모하였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23)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그리스 총사령관은 밀티아데스(Miltiades : B.C.554-489)였고 승전소식을 전하고 숨을 거둔 이는 페이디피데스(Pheidippides)이다. 참고로 그가 실제로 달린 거리는 36.75km라 한다.

24) B.C.490년 다리우스의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심장부 아테네를 공략하기 위하여 아티카(Attika)의 북동 해안에 위치한 마라톤 광야에 상륙하였다. 이를 접한 아테네는 밀티아데스의 제안에 따라 마라톤에서 적을 맞아 싸울 작전을 세우고, 약 1만의 정예부대를 급파하기에 이른다. 마라톤에서 그리스와 대치한 페르시아군은 우회하여 해상으로부터 직접 아테네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에 아테네군은 즉시 전면전을 감행하여 페르시아군을 대파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약 7,000여 명의 병사를 잃은 데 반하여, 그리스의 전사자는 불과 200명이 채 안되었다(Anglim, et al, 2002, pp.21-33).

3.5.2 그리스와 계속되는 전쟁에서의 패전

크세르크세스 I세(Xerxes I : B.C.486-465)는 다리우스 I세 아들로 선왕 때부터 지속된 이집트와 바벨론 내에서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그는 B.C.480년 대군을 이끌고 사르디스를 출발, 각지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살라미스(Salamis) 해전에서 그리스군에 패배하자 급거 귀국하였다(Anglim, et al, 2002, pp.226-237). 이듬해 B.C.479년 수하의 장군 마르도니우스(Mardonius)가 이끄는 원정에서도 역시나 플라타에아(Plataea)에서 대패하였다(Anglim, et al, 2002, pp.135-149).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영토 자체는 손해를 입지 않아 국위는 여전히 융성하였다. 다만 이때의 패배로부터 페르시아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페르시아는 최후의 왕 다리우스 III 세까지 끊임없는 내분에 국력을 소진하다가 B.C.334년, 그리스를 통일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대왕에 무너지고야 만다. 이로써 찬란했던 페르시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알렉산더대왕은 그리스 본토를 포함하여 페르시아의 전 영토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다(Olmstead, 1948, pp.248-261).

3.6 예루살렘의 성전재건을 도운 아트라크세르크세스 I 세

아트라크세르크세스 I 세(Artaxerxes I : B.C.465-424, 성서에는 아닥사스다)는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본국 귀환에 앞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곧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알고 가르치는 에스라에 대한 특명으로써 우선 평안과 복을 빌고, 왕의 온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누구를 불문하고 귀환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아닥사스다왕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금과 은을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리는 것 또한 허락하였고, 그들 스스로가 봉헌하는 금과 은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의 사용도 허락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

25) 살라미스 해전에서 군사력에 있어 페르시아가 월등하였다. 이전에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대부분의 도시국가를 정복한 상태에서 그 기세 또한 월등하였는데, 당시 약 800척으로 구성된 함대로 400여 척에 불과한 그리스 함대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는 페르시아 함대를 좁은 해협으로 유인하여 기동력을 떨어뜨리고 이어서 맹공을 퍼부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이 해전에서 그리스는 약 40척의 함선이 침몰하였으나, 페르시아는 태반의 함선이 수장되고야 만다. 살라미스 해전 후 페르시아군은 철수하여 약 1년여의 준비기간을 갖게 되고, 이후 재차 그리스 정복에 나서 플라타에아에 침입하게 되는데, 당시 군사력에 있어서는 페르시아가 25,000여 명, 그리스는 불과 10,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전쟁 초기에는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전세를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하였으나, 그리스의 장군 밀티아데스의 지략으로 그리스는 전쟁을 또 한 번 승리로 이끌게 된다.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군은 6,400여 명이 전사하였으나, 그리스군은 192명에 불과하였다.

도록 하는 당부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국의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임을 약속하였다.

더불어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총독들에게 직접 명령함에 있어 선지자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삭감하지 말고 공급해 줄 것과 어떤 명목의 조세로부터도 자유롭게 할 것을 특명으로써 당부하기도 하였다. 왕의 이 같은 관대한 처사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과 이 왕실에 미치지 않을 것을 소원하는 기원에 비롯되어 있었다.

한편 다리우스 재위 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 있었던 치리와 행정권까지도 부여하였는데,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죄에 따라서 처단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하였다(스 07). 이처럼 아닥사스다왕은 성서에서는 친근한 인물로 설에는 그가 1,000km 이상 떨어진 이스라엘의 오순절에도 참가하여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목도하였다고 전한다.

3.7 페르시아에 대한 성서기록의 조명

3.7.1 여호와 도구로 사용된 고레스²⁶⁾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사 42-05-09)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26) 고레스대제는 구약성서를 통틀어 메시아(Messiah)로 칭해졌던 유일한 인물이었고, 여호와와 도구로 사용된 바사(波斯, Persia)의 제왕이자 회대의 성군이였다. 이처럼 여호와가 고레스에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신 것은, 당시 포로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전 세계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그리스어화[Christos] 된 말로, 곧 그리스도의 어원이 된다. 구약성서를 통해, 기름부음을 받고 등극한 이스라엘왕을 제외하고, 이방인으로써 메시아로 칭해진 인물은 고레스가 유일하다. 한편 이사야 45:04-06의 기록은 고레스 정복에 의해서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 고레스는 스스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다만 이 예언은 제2의 고레스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못문을 쳐서 부수며 쇠뿔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사 45:01-04)

이 당시 고레스대제는 거침없이 주위 열국들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목도하고 여호와와 뜻이 고레스 배후에 있고, 고레스는 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여호와와 도구로써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이 같은 예언을 하게 된다.²⁷⁾ 고레스대제는 앗시리아·바벨론과는 판이하게 다른 신앙적·도덕적 인물이었기에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이 같은 예언을 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여호와와의 섭리는 이처럼 고대 오리엔트 종막 편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고레스의 치세 시 고대 오리엔트에 속한 제 민족들이 자립하기에 이르는 일대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곧 앗시리아의 강제이주정책에 희생된 고대 오리엔트 제 민족이 이제 각자 그들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다. 이 경우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귀환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로귀환은 시각에 따라 이방인, 즉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빌려 겨우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으나, 당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그 역사의 섭리가 한없는 여호와와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일대 사건이기에 충분하였다. 이 같은 고레스대제의 치세의 기틀은 이후 확고하게 정립되어 이후 왕위를 계승하는 페르시아 각 왕들의 표본이 되었다.

3.7.2 고레스대제 조서와 포로 귀환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27) 정확히 제2 이사야 선지자를 말한다. 현재 성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대로 조감할 경우 본래 이사야서는 39장까지이다. 제40장 이하는 예언자 이사야보다도 훨씬 후대에 속하는 무명의 예언자 기록으로 간주된다. 이를 소위 제2 이사야서라 칭하는데, 범위는 40-55장까지이다. 마찬가지로 56장에서 66장은 제3 이사야서라 칭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와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열 개요 그밖의 그릇이 천 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스 01)

이 기록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다인을 석방한 것을 하나님께 이용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레스의 이 같은 선언적 기록은 그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써 사용되어진 인물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있고, 그가 신앙적 동기에 휩싸여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고백한 선언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기록은 유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그들이 여호와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 가치 눈물겨운 놀라운 사실로 남겨져 있다. 이 선언으로부터 이스라엘 포로귀환은 귀환 후 성전건축의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구약성서의 결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또한 이 역사적 사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에 있어 마지막 대단원의 서곡이기도 하다.

실로 고레스는 그의 사후 2,5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간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각 민족 저마다 고유한 민족적 정체성을 존중하였으며, 피정복민족에 대하여서도 넓은 아량으로 감싸 포용하고자 했던 스케일이 큰 정복자였다. 뿐만 아니라 앗시리아·바벨론을 거치는 동안 강제이주 및 보복정책에 민족혼을 말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자애로운 성군으로 추앙받기에 충분한 인물이었다.

그는 고대 오리엔트 전역을 통일하였던 실질적 정복자이자 대군주로서 역사에 자취를 남기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의 위대성은 아마도 고대 오리엔트 제 민족들을 감싸 안고 포용하였던 희대의 성군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²⁸⁾

28) 후일 페르시아를 정복하여 세계 주도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긴 알렉산더대왕은 페르시아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고 철저히 초토화시키는데, 다만 파사르가다에의 고레스대제 무덤만은 보존하고, 그 앞에서 예를 갖추었다고 전한다. 희대의 성군으로서 고레스대제의 위대

3.7.3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건축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스 03:07)

고레스대제 조서에 의해 가나안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재건을 위한 과업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우선 그들은 예전 솔로몬의 성전건축과 동일하게 두로(Tyre), 시돈(Sidon)의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다에 띄워 욥바(Jobba)로 운송해 오도록 하였다. 그 대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각각 곡물과 술과 기름을 주었다. 당시 성전건축의 총책임자는 고레스대제였는데, 그는 그의 조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람 족속들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재건에 더불어 참여하게 하였다.

그런데 성전건축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한다. 즉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지파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이에 항의하며 대적하는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아님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앗시리아 속주로써 사마리아 지방에 편입되어 살던 잔류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으로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었다. 이들이 이른바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당시까지 이방인들과 혼합된 상태에서 혈통을 이어 그들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자칭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성전재건에 제동을 걸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것도 앗시리아 예살하돈이 그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이후 줄곧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 그들 자신들도 성전재건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바가 그 요지였다. 이에 스룹바벨(Zerubbabel)과 예수아(Jeshua)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층은 고레스대제의 조서에 의한 특권을 주장하며 그들의 항변을 일축하였다(스 01:05, 02:02, 03:09, 느 07:07).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의와 좌절에 빠뜨려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시도하게 된다. 예컨대 귀환한 유대인들의 성전재건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유다에 와 있는 바사의 관리들까지 뇌물로 매수하기도 하였다. 그 시기는 고레스왕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오왕 재위 2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지속되었다(B.C.520년 경)

한편 사마리아인들은 성전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크세르크세스 I 세(Xerxes I : 성서에서는 아하수에로)왕 때부터 다리우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전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유다인을 상대로 상소문을 그치지 않고 있었다(B.C.486년).

다리우스 재위 시 이 같은 상소사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그간 지루하게 대립했던 성전재건에 관한 분쟁이 종결되게 되는데, 당시 다리오왕은 공문서들을 보관해 놓은 바벨론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명하였는데, 그곳에서 고레스대제 조서를 접한다. 그 조서는 고레스대제 재위 1년 발표된 초본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재건 후 거기서 다시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조서이다. 이 공사에는 옛 터전을 다시 이용하되, 건물 높이와 폭을 각각 27m로 하고, 또한 사각 돌로 3층을 쌓은 다음, 나무로 1층을 쌓게 하라. 비용은 모두 국고부담이다. 또한 이전에 네부카드네자르가 약탈하여 바벨론에 두었던 금·은의 성전기구들은 다시 반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자리에 가져다 두도록 하라.”

다리우스는 이 같은 고레스대제의 칙서를 접하고 유프라테스강 서편의 지방 총독 닷드나이(Tattenai), 부관 스탈보즈나이(Shetarbozenai) 및 총독부 관리 전원과 그 지방 모든 관리들을 철수시키고 일절 성전공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명을 내리게 된다(스 05:03). 뿐만 아니라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 모든 비용마저도 국고에서 직접 지출하게끔 특명을 내렸다. 이후 다리오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재건에 머무르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누락됨이 없이 적극 지원하였고, 나아가 유다인들의 왕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다리오왕은 성전재건에 관한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에 대하여 만약 명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집의 대들보를 빼어다가 기둥에 못 박아 죽임은 물론 그의 가문을 쓰레기 더미 위에 묻을 것이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어떤 왕이나 민족이든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한다면, 그곳을 성소로 선택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런 왕과 백성을 멸망시키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칙서를 내리게 된다.

이 같은 칙서에 힘을 얻은 유다인은 성전재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또한 성전공사에는 학개(Haggai)와 스가랴(Zecharah)가 하나님의 지시를 전하며 격려하였던 까닭에, 이후 공사는 더욱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레스대제 조서와 아트라크세르크세스(Artaxerxes I) 및 다리오왕의 조서를 좇아 성전공사가 완성되게 되었다. 때는 다리오 재위 6년, B.C.515년이였다.

좌로부터 다리우스 I, 크세르크세스 I, 아트라크세르크세스 I, 크세르크세스 II



다리우스 II(좌)

크세르크세스 II(우)



<사진 3> 페르시아 왕조가의 현재 무덤

Ⅳ. 결론 : 페르시아의 세계경영과 여호와의 계획

4.1 성서적 시사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한 이스라엘은 430여 년간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사사시대를 통해 영원한 숙적 블레셋과의 항전을 거쳐 온갖 우여곡절 끝에 왕정체제를 확립하게 되나, 그도 불과 3대에 머물다 솔로몬의 학정에 기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다.

분열된 왕국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정기간 존속하게 되나, 그도 오래지 않아 차례로 앗시리아 및 바벨론에 의해 출애굽 기준(B.C.1445-1400) 약 900년을 지나며 고대 오리엔트사에서 그들의 민족적 기원과 정체성을 영구히 상실한다.

각 왕조의 면면을 살펴볼 경우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상실민족으로서 치부됨은 마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때마다 그 말씀의 법에서 이탈하고자 했던 불순종과 거역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과 경배의 대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자신이 출애굽 이후 몸소 체험해 가면서 익히 체득하고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징벌 및 멸망의 역사적 여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구약성서의 기록이자 단순하지만 파노라마와 같은 성서의 역사관[史實]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선지자 및 예언자를 통해 거듭 나타내 보이시지만 남북의 열조는 이에 귀 기울임 없이 한결같이 배반과 반역으로 일관한다. 그 결과는 수족을 못 쓰게 되거나, 참혹한 죽음을 맞거나,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눈이 뽑히고 전차에 짓이겨지는 비운이었다.

그 역사적 실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중에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나, 무릇 악한 심사가 그 본성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의 마라에서, 바알의 제단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신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차없이 배격한다.

성서적 사관에 비추어 본 고대 오리엔트사는 이처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징벌과 연단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인데, 이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체로 보아 분명한 사실이다.

고대 오리엔트 주체로서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징벌의 도구로서 사용된 대표적 제국이 앞서 본 앗시리아·이집트·바벨론 등이었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지배의 근간은 압제와

억압 그리고 처참하기 그지없는 살육과 도륙이었다.

고대 오리엔트사에서 이스라엘이 자취를 감추고 난 이후 발현한 제국으로서 페르시아는 이 같은 지배방식을 철저히 배격하고 주변 열국들을 향하여 전례없이 관용과 포용의 선정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던 바, 이것이 세계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었다.

그 한 중심에 돋보이는 인물로서 현재까지 칭송되고 있는 위대한 왕이 다름 아닌 성서상의 고레스대제이다. 그는 페르시아를 건국한 장본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방민족 최초의 메시아로서의 지위를 점한다. 그의 통치철학은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의 짧은 왕에게 제국의 다음 지위를 보전해 줄 때까지 줄곧 이어져 왔던 바, 모름지기 그 핵심은 관용과 포용이었다. 고레스대제에 관하여 성서에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사 44:28)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못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01-06)

요컨대 인본주의를 모토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며 인류공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페르시아는 인류역사상 그 어떤 제국에 뒤지지 않은 위대한 유업을 후세에 남겨주었다고 생각한다.

그 배경은 위 기록에서와 같이 성서적 사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역사적 실재와 결코 다르지 않은 분명한 사실이자 역사관이라 할 수 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값없이 주셨음에 이것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을 향하신 본래 하나님의 뜻, 곧 사랑이었다. 페르시아는 이를 낱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2 경영사적 시사점

아케메네스 왕가의 유업을 대표할 수 있는 고레스대제의 세계경영의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권리와 책임이 부여된 인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의 선언, 열국의 제 민족들을 포용한 세계주의와 개혁정신, 영원한 적국이었던 그리스에서도 오랫동안 위대한 군주로 칭송받게 된 통치철학, 위대한 정복자가 아닌 고대 오리엔트 혈통의 진정한 왕의 왕이 되기까지의 처세술, 제국 내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제 열국의 민족들과 더불어 공존의 번영을 꿈꾸고자 했던 세계경영, 따뜻한 인간미를 소유하였던 남다른 성격 등이다.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폰은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건설한 군주인 고레스대제를 좋은 정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진정하고도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의 저서 키루스의 교육(Kyroy paideia : *Cyropaedia*)에서 고레스대제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이동수 역, 2005).

“우리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인간을 지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생명체를 지배하는 것이 더 쉽다고 결론짓고 싶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키루스가 수많은 도시와 사람, 그리고 종족을 잘 지배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우리는 이 의견을 바꾸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지배가 명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키루스가 있는 곳에서 며칠 또는 몇 달씩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키루스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키루스를 결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기꺼이 그에게 복종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키루스의 신민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키루스가 다른 왕들, 이를테면 아버지에게서 왕관을 물려받은 자나 자신의 노력으로 왕위를 얻은 자와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사실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대왕에 의해 페르시아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당시에도 그 찬란했던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 등이 모두 불태워 없어졌지만, 알렉산더는 유독 키루스대제의 무덤만은 그대로 보존하여 두었는데, 이는 고레스대제의 유업을 부각할 수 있는 역사적 예표라 할 수 있다. 곧 현재까지 고레스대제의 유적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후세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젊은 대왕이 그 생애에 있어 가장 본받고자 했던 고레스대제의 세계경영의 이념을 그 가슴속에 새겨두고자 했던 바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난 1971년, 전 세계 약 800여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레스대제 탄생 2,500주년 기념식이 국내·외 정치지도자 3만여 명이 운집하여 그의 소박했던 거처였던 현재의 이란 파사르가다에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던 사실은 고레스대제의 세계경영사

적 정치사상이 그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이었나를 되새겨 볼 수 있기에 충분한 사실이다.

요컨대 국내·외적으로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반목과 갈등, 첨예한 이해의 대립, 국가관과 정체성의 상실, 삶의 목적 불분명과 가치관 파탄의 확산, 사회·경제적 이기주의의 팽배에 따른 환경오염과 파괴 등의 각박한 현대사회를 돌이켜 봄에 있어, 가히 고레스대제의 세계경영사상은 앞으로 당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대를 이어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원대한 꿈과 비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핵심은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안타깝게 애쓰는 삶의 모습,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겸손의 미덕을 통해 후일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을 통해 그 아름다운 결실을 세계만방에 드러낼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 당시 제반 열국 저마다의 민족혼을 존중하여 그들 나름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관용의 정치를 펼쳐 나간 사실, 관용과 포용에 기초한 위대한 리더쉽 등에 기초한다.

참고문헌

- 이동수 역, 키루스의 교육, 한길사, 2005.
 심종석, 구약성서의 이해, 이컴비즈넷, 2004.
 Allen, L., The Persian Empire, Univ. of Chicago Press, 2005.
 Anglim, S., Fighting Techniques of the Ancient World, Amber Books Ltd., 2002.
 Broadman, J.,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Brosius M., The Persians, Routledge, 2006.
 Frye, R. N., The Heritage of Persia, Mazda Pub, 1993.
 Hedrick, Larry., Xenophon's Cyrus the Great, Truman Talley Books, 2006.
 Loveday, H., et al., IRAN Persia, Odyssey Books Ltd., 2005.
 McIntosh, Jane R., Ancient Mesopotamia, ABC-CLIO Inc., 2005.
 Olmstead, A. T.,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Univ. of Chicago Press, 1948.
 Sam, A., Pictorial History of IRAN, Auther House UK Ltd., 2006.
 Schomp, V., Ancient Mesopotamia, Scholastic Inc., 2004.
 Smith, G., Assyria, Elibron Classics series, 2006.
 Smith, P., The Ancient History, Elibron Classics series, 2005.
 Roaf, M., Mesopotamia and the Ancient Near East, Andromeda Oxford, 2008.
 University of Oregon Historical Atlas Resource, 2009.

Vaux, W. S. W., *Ancient History from the Monuments PERSIA*, Elibron Classics series, 2005.

Wiesehöfer, Josep., *Ancient Persia*, I.B Tauris Publishers, 2005.

[저자소개]

경희대학교 졸업(공학사)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박사학위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구리시 소재 두레교회(김진홍 목사시무)를 섬기고 있다. CBS 패널, 크리스천투데이 객원논설위원으로 그리고 뉴라이트연합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평신도 시각에서 『구약성서의 이해』를 발간하여 교계와 학계의 참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신앙칼럼으로서 「국밥 한그릇과 컴퓨터」,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수미산에서 바라 본 갈보리 산의 저녁노을」, 「평신도 지도자에게 길을 묻다」 등 수편이 있다. 현재 페르시아의 역사 및 키루스대제의 생애와 성서고고학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에 임하고 있다.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에 재직중이다.

Global Management by the Achaemenia Dynasty of Persian Empire

Shim, Chong Seok*

<Abstract>

The persians were one of the most highly developed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world. Their influence on western european civilizations is apparent not only in regard to the linguistic affinity, but also in terms of culture, society, and even the christian religion. As we known that The persians were the first monarchy to create a world empire which included most territories of the known ancient world, from egypt to india, and from southern russia to the indian ocean. This research remarks serve to highlight the political, historical, and biblical achievements of the persian empires. Actually a person as empire' leader si Cyrus the Great, he is rightly regarded as the founder of the persian empire. Within the space of about twenty years Cyrus led a series of military campaigns in which he subjected the existing kingdoms of the known world, media, lydia and babylonia, as well as territories east of parsas, controlling an area roughly equivalent to the geographical territory of the modern middle east, reaching from turkey and the levantine coast to the border of india, and from the russian steppes to the indian ocean. This was a phenomenal and outstanding achievement for a single ruler, whose charisma and military skill allowed him to command a vast, multi-ethnic army, and who enforced a political organization of empire which remained an effective tool of imperial government for over 200 years. Beyond a shadow of doubt, Cyrus political minds are based on the spirit of tolerance and consideration.

Key words : Persian Empire, Cyrus the Great, Tolerance, Consideration

* Full-Time Lecturer, Dep't of Foreign Trad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